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패역해 가는 이 세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6호 2011년 8월 13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오순절 지각변동... 개인과 사회 복음 동시 포용

CT, 사회 정의 구현으로 돌아선 오순절교회의 현주소와 그 원인 소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강조하는 펜타코스탈 교회에 지각 변동이 왔다. 한마디로, 펜타코스탈 교인들은 더 이상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공화 사역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교회에서 펜타코스탈 교회는 주류교단과 달리 신학적 정통성을 인정받은 적자는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펜성령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부류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재 주류교단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주류교단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색 인종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내적 체계를 중시하고 역동적인 예배를 중시하는 펜타코스탈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체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사회 정의의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공동체 내부만의 종교 경험이 아닌 교회공동체 밖에서 새로운 희망과 정의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봉사 사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이러한 펜타코스탈 교회의 지각 변동이 바로 미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각성이라고 진단하면서, 성령을 통한 임재와 감동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한 각성과 실제적인 프로그램들로 다가가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보도한다 (A New Kind of Pentecostal: Its' no longer just about raising a hand to God. It's also about reaching out a hand to the needy).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 사회정의 구현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오순절 계통의 교회란 19세기 미국에서 창립된 후, 세계 도처로 퍼져나간 일단의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교회들을 가리키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후에 성령세례라고 불리우는 신앙적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을 말한다.

특히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1970년 당시에는 1천2백만 정도로 성장했다가, 현재는 지구촌 전역에 6억 명 정도의 오순절 교인들이 있을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북미적인 상황에서 현재 오순절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1) 교인들이 함께하는 대중예배에서의 방언사용의 급격한 감소
 - 2) 오순절 신학에서의 종말론의 신선한 발전
 - 3) 공화 사역이나 사회적 문제들에 폭 넓은 참여 증가
- 처지온더웨이(Church On the Way)교회로 잘 알려진 잭 해이포드(J. Hayford) 목사는 미국교회에서 오순절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이다. 그는 북미 오순절 교회들이 사회정의라는 교회 밖의 문제로 선회하게 될 배경에 대해 "오늘날 미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영적 각성"이라고 진단하면서, 특히 30대 미만의 오순절 교인들이 부처 공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그런데 그는 "오순절 교회가 이처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즉 1920년대 미전역에 불어 닥친 "대공황" 시기에도, 오순절교회 부흥사였던 맥퍼슨(A S McPherson) 목사의 "동정과 공화 사역"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대공황을 맞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맥퍼슨의 사역에서 희망을 얻었고, 이로 인해 1950년대까지 동 사역을 지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앤젤레스교회(the Angelus Temple)이다.

북미 오순절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 문제"나 "사회정의"에 관계된 용어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바로 주류교회나 월터

라운제부위의 "사회적 복음"을 표용한다면 오순절 교회의 생명인 영적 차원을 상실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사회적 복음을 강조한다면 구원의 메시지와 성령의 선물들과 같은 귀중한 가치들이 잠식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촌에 산재된 오순절 교회들은 더 이상 그러한 염려나 기우에 빠지지 않는다. 브라질, 칠레, 그리고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오순절 교회들이 교육이나 농업 개혁에 속속들이 참여하고 있어, 신학적으로도 오순절교회의 사회 참여를 다룬 논문이나 감행물들이 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3면으로 계속)

광복 66주년... 8.15해방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

신앙선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66주년을 맞았다. 광복절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고 항복함으로써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민족해방 기념일로 부른다.

광복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도처에 살아있다.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작게는 내 나라를 구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의 목숨 건 신앙과 일제 치하의 교회들이 당면한 압박 등 신앙의 선배들의 나라사랑 이야기는 즐비하다. 더욱이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대통령 이승만 장로가 이끄는 초대내각은 기독교 색채가 짙었다.

광복 66주년을 맞아 LA 지역에서 나라사랑 관련단체에 오랫동안 사역해온 최학량 목사(새창조교회 원로)의 글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한편 지난 2003년 이후에는 우익단체인 뉴라이트에 의해서 현재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의 변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미 1919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 정부가 수립돼 건국됐다가 1948년 정식정부를 수립한 것인데,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년으로 본다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편집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광복 66주년 기념 -

최학량 목사(LA한미친선연합회 회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언제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삼천리강산'이 된 애국가로 바로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한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영어로 rose of sharon이라고 한다. 아가서 2장 1절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원어에는 "바차렐"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꽃을 우리 성경에는 "수선화(Daffodil)로 영어 성경에는 "Rose of sharon"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영어명을 우리말로 쓰자면 "무궁화로 쓸 수 있는 단어다. 우연의 일치일까. 무궁화라는 꽃말이 우리 민족성을 표현해주니 반갑기도 하다.

(3면으로 계속)



2면

경기침체, '경제 회심'이 근본적 해결책



7면

예장 합동 '기도한국 2011' 설교 송용걸 목사(신천교회 담임)



13면

인터뷰 김옥란 선교사(KAPC 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16면

인터뷰 김영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총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장로교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1년 가을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1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1년 9월 12일(월) - 9월 14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던 존경받는 한 지식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통을 치고 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곁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묻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글

로써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에 수많은 수필을 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잔 폴 사르트르입니다. 이것이 그의 말로입니다. 1980년 4월 18일 입원한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러한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과 죽음 후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역사에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와는 다른 모습의 죽음을 맞은 한 위대한 생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였던 하용조 목사님이 65세의 나이로 평생을 사모하며 섬기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에 내노라하는 정치인들, 셀 수 없이 많은 연예인들,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시신 앞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일본인 목회자는 일본에서 급하게 방문하여 하용조 목사님이 못 다한 일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감사의 말과 조의를 표했습니다. 다 같은 작은 관에 누여 땅에 묻히는 삶이 이렇게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일까요?

하 목사님은 복음의 불타는 열정으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온누리교회를 세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전통의 틀을 벗어버리고 문화와 예술의 도구를 사용하여 방황하는 사회의 각 계층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자신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던 고인은 전 세계에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겼습니다. 간 이식 수술, 당뇨병, 계속되는 투석으로 자신은 움직이는 병환이라고 말했던 고인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은 오히려 강렬해졌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날에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며 소망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나누었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새겨봅시다.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것을 할 땀이 나지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땀 바쁘지 않더라도 피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쁘지만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사십시오"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 고인의 삶을 증거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7-8).

경기침체, '경제 회심'이 근본적 해결책

리더십저널, 짐 월리스의 공공선을 위한 가치 선택과 소그룹 운동 소개

세계 최강대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절되고, 겨우 "디폴트" 상태만을 피할 정도의 금융 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2009년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가 바로 도덕 위기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대한 우상숭배가 어떻게 우리를 몰락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왜 도덕적 각성과 공공선에 대한 새로운 헌신이 필요한가를 말한다.

아직도 월가에서 터지기 시작한 금융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이전처럼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회복하고 시민 사회가 깨어나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소저너"지 발행인인 짐 월리스는 신앙인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예언자적 목소리로 '경제의 회심'을 촉구한다.

미국발 경제 위기 직후 열린 2009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자리였다. CNN은 유명 기업인들을 찾아가 날마다 이렇게 인터뷰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요?" 그러나 짐 월리스는 이 질문을 "이 위기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치 토크'를 이끌고 중대한 반향을 얻어낸다.

이제 '예전 모습 그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탐욕은 선하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나는 그것을 지금 원한다"는 말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래된 그러나 가장 좋은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때다. "그만하면

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 소그룹 차원에서 함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이 있다.

일정과 예산은 도덕적 문서다.
예산을 보면 그 가정이나 소그룹, 교회, 시, 주, 국가에 무엇이 그리고 누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일정 역시 도덕적 문서이다. 일정은 우리가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며 예산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를 기록한 목록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시간과 돈을



는 것이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나눠본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당분간 그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함께 해본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나 돈을 삶의 우선순위에 투자하거나 신뢰하는 기관에 기부해본다.

봉사하는 삶을 살라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무렵에는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

먼저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이나 헌신에 있어 모범이 되는 단체를 후원한다.

결국 몇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사람들이 함

도덕적 각성과 가치 재발견으로 균형 잡아야 소그룹에서 실천 선택...변화는 역사를 바꿔

충분하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실제적인 덕목들은 다음과 같다:

-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빚을 내서 사는 것은 경제와 가정 모두에 독이 된다.

- 이웃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대신 이웃이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 광고에서 말하는 가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 가치다.

-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건강한 사회는 시장과 정부, 시민 사회가 각각 제 역할을 하는 균형 잡힌 사회다.

- 우리가 나누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충분하다는 사고들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짐 월리스의 지적처럼 우리는 올바른 질문, "이 위기는 우리를 어떻

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눠본다.

스크린을 보는 시간 vs. 가족과 보내는 시간

스크린 덕분에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게임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책을 읽거나 바깥에 나가 놀거나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더 잘 보내기 위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본다.

단순한 삶은 축복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돈으로 필요 없는 것을 사는 대신 우리는 단순한 삶이 축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단순함은 삶의 풍성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

에 자원봉사자들과 기부 물품이 넘쳐난다. 그러나 봉사가 연례행사나 기념일에만 하는 활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천하기: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관을 찾아 1년 동안 꾸준히 자원 봉사를 해본다.

캐나다의 소리를 들으라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가장

게 다른 선택을 할 때 변화는 커져만 간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지면 변화는 하나의 운동이 되는데, 역사를 바꾼 것은 이런 운동이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소그룹 차원에서 이런 선택을 실천해보시기를 바란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선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3-0200(대 표) (323)665-0009(광고국)
Fax(213)380-5951(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청빙

지원자격

청소년 선교에 열정이 있으며 신학 공부를 한 분
영어로 설교와 회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조
http://www.kumcabq.com/YouthDirector/JobDescription.pdf

제출서류

이력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나 교수 추천서 1부
평신도 추천서 1부

제출방법

Attention : Pastor Kee Cheon Kim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마감: 2011년 8월 31일

문의 : 김기천 목사 TEL. 505-803-7716, abqkee@gmail.com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포 후원을 받습니다.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옛날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날은 마켓마다 냉장고마다 식탁마다 맛있는 음식이 차고 넘치지 만 다른 반찬이 없어 찬밥에 물 말아

고추장을 찍어먹던 그 시절이 그래도 더 행복했습니다. 냉장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 시어 꼬부라진 열부

김치에 콩보리밥을 비벼먹어도 참기름 한 방울에 감격했던 그 때가 그래도 더 좋았습니다.

핵가족으로 가족이 많이 나누어졌고, 남아있는 식구들조차 세 식구이면 저녁을 세 번 차려야 하는 요즘보다 대가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한 밥상에 둘러앉아 먹던 그 시절, 가족 사이에 흐른 정도 더 깊었고 웃음도 더 많았습니다.

무릎마다 엉덩이마다 여기 저기 기운 옷을 입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던 시절, 몇 번이고 헝겊을 덧붙여 꿰매고 또 꿰매어서 두툼해진 양말도 없어서 못 신던 시절, 자가용은 커녕 자전거도 없던 시절, 뒤끝이 달아서 헐거워진 고무신을 신고 다녀도 신이 났던 그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

긴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면 너무 추워 고무신 안에 시린 발을 웅크리고 달달 떨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양지 바른 담에 기대앉아 햇볕을 쬐면 몸은 나른해지고 마음은 너무 편안해집니다. 점심시간에 소사 아저씨가 전쟁 구호물자로 찌서 나누어주던 옥수수 빵은 지금도 그 맛이 허끝에 남아 땀 돌 만큼 환상적이었습니다.

봄이 오도록 겨울 내내 반찬은 오직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김치 국, 김치 밥, 김치찌개, 김치전으로 모습을 바꾸어 밥상에 올라왔고 그 때마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산나물, 들나물로 겨우 보리 고개를 넘기던 부모님들의 시름은 한결 덜어졌습니다. 푸성귀와 햇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

니다. 온통 사방 개구리 소리로 시끄러워지는 여름이 오면 어른들은 농사일로 더 바빠지고 아이들은 방학에 신이 납니다. 방학 속에는 뒤로 하고 들로 산으로 냇가로 정신없이 뛰어 놀다.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농사짓는 집 아이들도 해가 지면 신이 납니다. 함께 다방구, 술래잡기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뚝뚝 떨어집니다. 밤이 되어도 가지지 않는 더위에 잠들지 못하고 밖에 나오면 별빛이 쏟아집니다. 밤새 모기에 뜯기며 서리해운 털 익은 수박, 참외를 맛있게 먹으며 떠들며 여름밤은 깊어져 갑니다. 별뿔뿔을 세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눅12:15). 우리의 행

복은 환경이나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궁극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쳐도 자녀의 삶을 언제나 해피엔딩(happy ending)으로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지금 그 행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고 계신가요?



푸/ 른/ 초/ 장

이기홍 목사

(사우스베이션교회 원로목사)



8월은 광복절 66주년을 맞는 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을 맞이하여 큰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드린 시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해방의 기쁨입니다(1-3).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심으로 해방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속박에서 해방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대사입니다. 둘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기도입니다(4). 지금도 포로 중에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이 해방을 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셋째, 역경에서의 확신입니다(5-6).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첫째, 해방의 기쁨입니다(1-3).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1). 큰 기쁨이 있을 때 "꿈인가"라고 표현 합니다. 지난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고생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 같이 일제의 속박에서 나라를 잃고 억울함을 당하다가 갑

자기 해방을 맞게 되니 꿈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2).

포로 중에는 웃음이 사라진 것 같이 36년간의 일제 속박 중에는 웃음이 없었는데 해방이 되어 자유가 있으니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지금도 독재 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웃음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3. 혀에는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2).

해방을 얻게 되니 자연히 혀에서는 노래가 있게 됩니다. 속박에서는 한숨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혀에서는 즐거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일, 한국이 일제 36년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

사입니다. 대한민국 66년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해방을 얻고 1948년 8월15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2)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위기 중에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3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3)1950년 8월16일 낙동강의 반격으로 북한군을 물리쳤습니다. 4)1950년9월15일에 맥아더 장군의 지휘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월28일에 수도 서울을 회복하였습니다. 5)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이뤄졌습니다.

6)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그리고 온 국민들을 통하여 6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7)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 선교사를 2만여 명 파송하는 나라(세계2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둘째 속박 중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기도입니다(4).

은 주민들이 자유와 평등이 없으며 경제가 어려워 굶주리고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없어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정치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이 고생하며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하여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2)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에서 속박되어 어두움의 세상에서 해매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셋째, 역경 중에 하나의 확신입니다(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부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심” 시편 126편 1-6절

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1)씨를 뿌릴 때는 힘들고 울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처음에는 고생을 하고 힘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직업을 15번 바꾸며 씨를 뿌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여 10년 동안에 10번 교회를 옮긴 일도 있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찬양의 초대, 참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일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은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8월은 무슬림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라마단 금식기간이다.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운동이 여러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Dr. Robert Morey의 저서 Islamic Invasion에서 현재 "이슬람은 50개국의 나라들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이고, 그중의 40여국에서는 이제 무슬림이 87%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전세계에 걸친 무슬림의 숫자는 경악할 정도로 증가되었다. 지금 유럽은 그야말로 "무슬림이 몰려온다"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전세계의 무슬림 인구가 가톨릭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교황청이 발간하는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신문은 2006년 교황청연감을 인용, 전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슬람의 모스크에 참석하는 무슬림의 숫자가 정기적으로 영국 성공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를 뛰어넘었다. 정부와 학술단체의 통계를 기준한 것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모스크에 출석하는 무슬림의 수가 93만명이지만, 성공회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는 91만6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무슬림이 숫자적으로 영국 교회를 뛰어 넘었다. 영국의 트렌드는 유럽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더 텔리그래프지의 아드리언 마이클스는 2009년도 보고서에서 이러한 무슬림들이 몰려오는 것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였다. 1998년도의 스페인의 인구 중 외국태생은 3.2%였는데 2007년도에는 13.4%나 되었다고 했다. 유럽의 무슬림 인구도 지난 30년

기독교와 무슬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참으로 많다. 하지만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1)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무슬림들은 코란을 믿는다. 2)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다. 3)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믿는데,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무슬림의 알라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믿는데, 무슬림은 알라에게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5)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데, 무슬림은 알라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한다. 6)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남을 믿는데, 무슬림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7)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무슬림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5가지 기둥으로 불리우는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 5가지 기둥은 (1)신앙고백(알라는 유일신이고 무하메드는 그 선지자) (2) 하루 5번



무슬림들이 몰려온다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계천 목사

무슬림이 19%인 반면, 가톨릭교인이 17.4%라고 보도했다. 기독교를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산하지 않고 본다면 이슬람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인 셈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무슬림이 15억이다.

한때 북음으로 꽃피웠던 유럽의 변화는 최고의 위기상황이다. 프랑스의 무슬림은 지난 10년간 2배로 급증했다. 또한 20살 미만의 아이들 중 30%가 무슬림이다. 베니스, 마르세유, 파리와 같은 더 큰 도시들에서는 이 숫자가 40-50%까지 증가한다. 2005년도의 유럽의 인구 성장의 85%는 이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많은 비율이 이슬람권으로부터 온다. 전통적으로 가장 교회가 많았던 남부 프랑스에서도 교회보다는 모스크(회교 사원)들이 더 많다.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2001년 영국 센서스에 의하면 160만이었었는데 이제는 250만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1962년도에 런던에 단 1개의 회교사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644개가 넘는다. 이 대부분이 폐허된 교회를 사들여서 모스크로 바꾼 것이다. 또한 지난 1월의 발표에 의하면 영국에서 이

간 2배로 증가했다. 2009년도의 자료는 브뤼셀에서의 태어난 남자들의 이름의 7번째까지는 모두 아랍식 이름이었다. 네델란드에서 태어나는 남자 이름의 1위는 무하메드이다. 그녀는 또 다른 기사에서 2008년 현재 무슬림은 유럽인구의 5%지만, 2050년도에는 20%가 될 것이라고 보도 인용했다. 하지만 다른 예측들은 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에도 "무슬림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내 무슬림들은 1970년도에는 10만명이었다. 지금은 6백만명이다. 몇 년 전에 24개의 이슬람 단체가 시카고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가졌는데 공언하기를 "30년 안에 5천만명의 무슬림이 미국에 살게 될 것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다. 무슬림들의 66%는 미국이 무슬림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들은 기독교 나라인 미국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슬람교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슬람교는 7세기부터 14세기의 전성기 이후에 서구의 식민정책으로 힘을 잃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독

슬람화 전략은 지하드라고 불리는 성전(聖戰)이다. 일부 무슬림들은 평화를 주장하지만 결국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코란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911의 사건이나 각종의 테러가 이슬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을 정당화 한다. 세 번째의 이슬람화 전략은 모스크의 설립을 통해 전 세계에 전략적 선교기지 구축한다. 오일머니로 모스크 건립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오일머니의 1/5이상이 모스크 건립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지난 50년 간 이슬람교는 200% 넘게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고, 관심 밖에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성경을 반대한다. 한 중동권 선교사가 이슬람은 사단의 걸작품이라고 한 그 표현대로 이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수긍하게 된다.

의 기도 (3)수입의 2.5%를 통해 구제 (4)라마단 금식기도 (5)메카순례, 그리고 최근의 (6)지하드라고 불리우는 폭력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9)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폭력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믿는데, 무슬림들은 종교적 폭력은 무하메드의 가르침을 이루는 길로 믿는다.

하지만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있다. 무슬림들이 주님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슬람 세계와 선교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Islam Watch 보도에 의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다. 작년 러시아에서 2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돌아왔다. 프랑스에서는 1만명이, 터키에서는 3만5천명이, 인도에서는 만명이 개종했다. 수단에서는 5백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놓칠 리가 없다. 한 사우디의 회교성직자는 "매일 1만6천명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다. 매해 6백만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했다. 분명해진 것인 무슬림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요즘 교회들 가운데서는 여러 성령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쿠카몽가에서 김 장로

A: 먼저 말세가 언제부터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세는 구약의 요엘이 말한 대로 예수님 초림, 즉 신약시대 시작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여 승천하신 1세기 때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교회에 성령의 소낙비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교회가 탄생하고 출발해 되었습니다. 풀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박사는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물결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1)제1의 물결은 "정통적인 오순절 운동"으로 영어로는 classical Pentecostalis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06년도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윌리엄 조셉 세이모어 라는 흑인 목사에 의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특징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에서 3가지 강조점을 두었는데 (1)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2)종말에 영적 추수를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신다. 지금은 바로 그 때라면서 한 집에서 모여 성령님을 사모하며 열

성령의 인격 역사 능력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

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3)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로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 다. 비판하기 위해 취재로 왔던 기자도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방언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받은 증거로 방언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성령운동을 통해 생긴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미국 하나님의성회나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이 계열에 속합니다.

2)성령의 제2물결은 1960년대부터 가톨릭교회 등에서부터 시작된 은사운동인데 이것을 신오순절 운동(Neo-pentecostalism)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자기가 속한 기존교단을 탈피하지 않으면서 초교파적으로 오순절 운동의 특징인 "방언이나 신유 등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3)성령운동의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는 1980년대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방언과 같은 체험이나 오순절주의의 독특한 교리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교단에 관계없이 "성령님의 인격과 역사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예배에서 따르는 표적으로 병자가 고침받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3의 물결은 세계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교파를 초월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이 성령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 교회의 성령운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비는 보물비가 아니라 열대지방의 스톱컷팅 엑스같이 내리는 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를 위해 주시는 성령님의 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마음 문을 열고 환영하고 모셔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세 교회의 성령운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추수 전에 오는 비입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전액장학생 선발공고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자: 석사, 박사 00 명
자 격: 1. 이중언어(한국어,영어)자로 토플 iBT 88~89 이상인 자
2. 최종학교성적이 3.7 이상인 자
3. 중생의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의 강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위	프로그램	학점
석사	B.A.B.S.	128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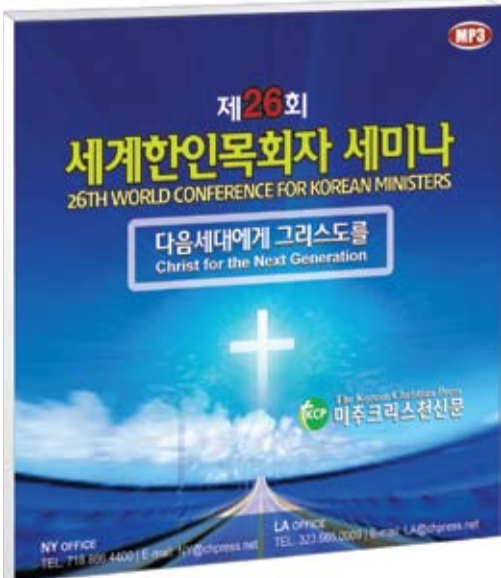
쉐퍼드대학교는 ATS 외원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info@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 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선, 김만형, 김상덕, 조일구, 홍민기, 송규식, 김계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인/터/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김영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총장

ACTS, 5년 위기 딛고 정상화 ... 재도약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지요.” 지난 5년간 교내 내용으로 존폐 위기까지 갔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가 지난 3월 김영욱 목사 총장취임을 계기로 재도약의 길에 들어섰다.

취임 후 첫 해외나들이로 뉴욕을 방문한 김 총장은 뉴욕목회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다 넘어갈 것 같은 학교가 다시 정상화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CTS가 출발부터 미주한인교회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만큼 학교 정상화의 소식을 가장 먼저 미주에 알리고 싶었다”며 한인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초대총장 립택권 목사님과 장영춘 목사님과의 친분으로 장 목사님께서 설립부터 많은 후원을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김 총장은 ACTS가 지금도 국내외 240 교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학교를 소개했다.

“37년전 개교한 ACTS는 제 3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신학의 정체성은 신본주의 복음주의 신학위에서 선교에 목표를 두고 아시아와 나아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한국교회에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과 물론 선교사로 선교현장에 내보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 특히 제3세계 학생들을 가르쳐 졸업 후 고향에 돌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부터 시작된 학교이고 영어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시작된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가 정체됐고 그러한 특성들이 모두 사라졌지요.

제가 취임하고 학교가 이제 본궤도를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다시 외국학생들도 모집하고 특히 한인 1.5세나 2세대들이 부모의 나라에 와서 공부하면 한국교



왼쪽부터 김옥희 사모, 김영욱 총장, 원종천 국제교육원장

회와 한국교회 문화를 알게 되기 때문에 트민스터신학교에서 했다. 또 이한영 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는 무처장도 브라질 이민자 출신. 이번 가을

명이 재학 중이지만 5년 전에는 7-80명 정도가 재학했었다. 물론 외국인들은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총장임기 동안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한다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생교육원의 확장이다. 비학위과정으로 현재 재학생이 250명 정도 된다. 나이 상관없이 전문직으로 면허증 필요한 직종과 목회자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교수진은 초교파로 모두 실력 있는 탐 클래스들이다. 정교수 30명, 강사 50여명이 강의하고 있는데 이들이 평생교육원 교육도 한다.

또 하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MK(선교사자녀)학교이다. 선교사들이 귀국하면 언어적으로 불편한 자녀들이 갈 학교가 없다. 그런데 한국교육법이 까다로우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

다. 목사안수 받았으면 한 우물을 파야한다.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딴 생각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된다. 교인숫자 생각 말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항상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 나가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내세우면 문제가 생긴다.

한 가지, 즉 목회에 미치면 된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분야에 미쳐야 한다. 번역의 신학과 타협하면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진짜 교수가 되기는 어렵다. 우리학교 교수들도 지난 2-3년 동안 무보수로 있으면서 자리를 지켰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기적도 일어난다. 우리 학교가 그것을 증거 한다.

교수나 목회나 다 사역이다. 다 힘들다. 학교도 생존하기 위해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만 경쟁이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성장한다.

*김영욱 총장은 1972년 미국개혁교단(CRC)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여년 간 캘리포니아 주 가든그로브장로교회를 맡았으며, ACTS에서 실천신학 교수와 북한 선교연구소장, 평생교육원 운영처장, 법안국장 서리, 총장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또 세계 오지와 낙도에 수륙양용 경비행기로 복음을 전하는 '항공선교'의 새 지평을 열기도 했다. 김옥희 사모와의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유원정 기자>

[정정: 지난 호 제16면 김애자 피아니스트 인터뷰 기사 중 이운영 목사(나성한미교회)를 (한미장로교회)로 정정합니다.]

평생교육원 강화·선교사자녀학교 개교 비전 세워

한국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지에도 갈 수 있으며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하게 될 때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남미 호주의 2세대들을 교육시켜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 한국 내 사역과 선교지, 이민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원(원장 원종천 박사)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원종천 목사 자신도 1.5세로 유편을 졸업하고 신학은 웨스

학기부터는 외국인 교수들도 강의를 맡게 된다.)

다음은 김 총장과의 일문일답.

-ACTS 재학생들의 구성은?
현재는 학부 850여 명, 대학원 400여 명이다. 원래는 대학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많다. 정원은 학부와 대학원 각각 850명씩인데 대학원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외국학생들도 이번 학기에는 22

성해 준비하고 있다

-미주에서 20여년 목회경험이 있으신데 후배 미주목회자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지금은 다 훌륭하다. 학교도 그렇지만 목회도 자기가 하려고 안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실망하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늘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한다. 목사안수 받고 딴 직업을 갖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

러시아 천사 합창단을 초청해 주신 여러 교회에 드리는 감사의 말씀

러시아 선교 20주년 기념 동남부 지역 미국순회 공연에 저희 러시아 천사 합창단을 초청하여 주시고 환대해 주신 32 교회와 러시아 선교를 위해 헌금해 주시고 또 합창단원들을 가정으로 초청하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7월에 순회한 교회

- 7월 1일(금) 세계난민구호재단 (이사장 손영구 목사님)
- 2일(토) 뉴욕 만국교회(김희복 목사님)
- 3일(주일)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님)
- 4일(월) 뉴욕 그루터기장로교회(김의승 목사님)
- 5일(화) 헤리스버그 한인제일장로교회(김현국 목사님)
- 6일(수) 버팔로 한인연합감리교회(지영재 목사님)
- 7일(목) 피츠버그 한인교회(조영선 목사님)
- 8일(금) 앤아버 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목사님)
- 9일(토) 시카고 노스웨스트장로교회(김성득 목사님)
- 10일(주일)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님)
- 11시 시카고 아카데미장로교회(신광해 목사님)
- 오후 3시 헤브론교회(김선중 목사님)
- 11일(월) 시카고 러시아 천사합창단 후원회(회장 신홍식 장로님)
- 12일(화) 신시내티 한인침례교회(이원원 목사님)
- 13일(수) 내쉬빌 연합침례교회(이행보 목사님)
- 14일(목) 알라바마 버밍햄한인침례 교회(장영득 목사님)
- 15일(금) 후롤리다 포트윌턴교회(이홍식 목사님)
- 16일(토) 케인스빌 한인침례교회(손민석 목사님)
- 17일(주일) 오칼라 한인장로교회(김삼 목사님)
- 18일(월), 19일(화) 올랜도 아르다교회(염준용 목사님)
- 20일(수) 잭슨빌 제일장로교회(이운복 목사님)
- 21일(목) 하인스빌 한인침례교회(이명훈 목사님)
- 22일(금) 아틀란타 실로암한인교회(신윤일 목사님)
- 23일(토) 한버전 애틀랜타교회(이요셉 목사님)
- 24일(주일) 11시 아틀란타 인디옥교회(허연행 목사님)
- 오후 2시 새한장로교회(송상철 목사님)
-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이홍식 목사님)
- 25일(월) 샬롯 한인 제일장로교회(나성근 목사님)
- 26일(화) 팔리 한인장로교회(조문길 목사님)
- 27일(수) 28일(목) 페닌슐라 영광장로교회(황영선 목사님)
- 29일(금) 워싱턴 세계선교회(김석현 목사님) (장로 성가단 협찬)
- 30일(토) 워싱턴 새한장로교회(장재윤 목사님)
- 31일(주일) 오전 9시 11시 워싱턴 온누리 드림교회(이근호 목사님)
- 오후 7시 볼티모어교회(이영섭 목사님)

8월 1일 모스크바로 귀국

1991년 지금으로부터 만 20십년 전, 그 당시 16세-20세의 소녀들과 11세-16세의 어린이들로 천사 합창단을 각각 설립하여 성경과 찬송과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서 천사합창단을 통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음악회를 통하여 수많은 청중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서 오늘날 러시아 선교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선교의 문도 열게 할 수 있었고 오늘의 세계적인 천사합창단으로 성장되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전도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교포교회는 물론 수많은 미국인교회와 특히 로버트 솔러 목사가 시무하는 수정교회와 예일대학의 초청으로 음악회를 가진바 있으며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그 당시 소녀 단원들이 이제 모두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갖고 어머니들이 되어 더 이상 세계 순회 전도음악회에 동참 할 수 없게 되어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공연에 방문했던 교회마다 너무 좋은 호응을 받게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합창단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격려를 받게 되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73세가 되어버린 내 나이로 제 2의 천사합창단을 재 조직 해야 할 것인지도 할 수 있을 것인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선교사 (러시아천사 합창단) 김바울 목사 드림